

'일산에 중국집 38 개 유치할것' (매일경제 2005.03.31)

일산에 중국집 38 개 유치할것'

"일산에 중국집 38 개 유치할것" "중국 요식업 종사자들이 한국 진출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산차이 나타운에 중국 음식점 38 개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

"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부대지원시설용지 6 만 9000 에 'i 차이나타운'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양필승 개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(건국대 교수)은 지난달 29 일 베이징 캠펜스키 호텔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.

이날 설명 회에는 '베이징 오리'로 유명한 취안취더() 등 110 여 개 대형 음식점 관 계자가 참석해 한국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"중국인들은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이 매우 탁월하다"고 평가한 양 위원장은 " 일산지역이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지 중간에 위치해 있는 데다 청화신과기원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 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"올해 화상대회가 개최되는 등 화상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 욕구가 높다" 며 "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홍콩 대만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차 이나타운에 투자할 중국 자본을 충분히 끌어들이 수 있을 것"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.

"화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VIP 급 화상을 끌어들이 는 전략이 필요하다"고 지적한 그는 "성공적인 외자유치를

위해서는 자본만 들 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함께 한국으로
들어오는 투자가 바람직하다"고 강조했다.

'i 차이나타운'에 들어서는 청화신과기원은 중국 기술표준과 시장, 한국
기술과 테스트시장 능력이 결합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
일본 등 첨단 기업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.

[베이징 = 윤형식 특과원]

< Copyright 매일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 .

2005 년 03 월 31 일 입력

[http://search.mk.co.kr/contentView.php?docid=530254&cid=1&key=%C0%CF%BB%EA
&ckey=](http://search.mk.co.kr/contentView.php?docid=530254&cid=1&key=%C0%CF%BB%EA&ckey=)